

올해도 대세는

단색화



박서보 화백



하종현 화백



정상화 화백

해외에서 불어온 열풍 타고 인기 고조

1970년대부터 제작된 한국 단색화의 인기가 국내외 미술계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올해 120주년을 맞는 베니스비엔날레 기간(5월9일~11월22일)에 대규모 단색화 특별전이 열리고, 세계적 경매회사인 소더비 홍콩은 아트바젤 홍콩(3월13~27일) 행사에 맞춰 단색화 전시회를 마련한다. 국내 옥션의 작품 거래가격도 지난 2년 사이 최고 10배까지 뛰었다.

한국에서 '홀려간 사조'였던 단색화(Korean Monochrome Painting)가 국제 무대에서 새삼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2013년 하반기부터였다. 국제갤러리가 런던에서 매년 10월 열리는 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The Art of Dansaekhwa'란 주제로 이우환·박서보·하종현·정상화·정창섭·윤형근·김기린 등의 단색화 20여점을 출품해 큰 호응을 얻었다. 120여개 해외 갤러리들이 참여해 20세기 거장의 작품을 위주로 거래하는 프리즈 마스터스에 한국이 참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특히 영문명을 한글 발음대로 표기함으로써 독립된 사조로 인정받았다. 국제갤러리는

지난해에도 같은 행사에 참가해 출품작을 완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분위기에 부응

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뉴욕 소재 알렉산더 그레이 어소시에이츠 갤러리와 LA 소재 블럼앤포 갤러리에서도 한국 단색화전이 열렸다. LA 전시는 2013년 <Contemporary Korean Art-Tansaekhwa and The Urgency of Method(현대한국예술-단색화와 방법의 긴급성)>란 영문서를 출간한 조앤 기 미시간대 미술사 교수가 기획했으며, 박서보·하종현·정상화 화백이 직접 현지 관객들과 만났다.

국내에서도 단색화의 재조명 움직임이 이어졌다.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의 단색화'전을 개최한 데 이어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었었던 지난해에는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국제갤러리에서 '단색화의 예술'전이 열려 해외 미술관계자들의 발길을 끌었다. 국제갤러리는 이때 대부분 작품이 해외 미술관에 판매됐다



김기린 화백



정창섭 화백



윤형근 화백

국내 거래가격 2년 새 10배까지 뛰어

고 밝혔다. 단색화는 70년대 태동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사조인 미니멀리즘의 영향

을 받았으면서도 캔버스 위에 한지를 겹쳐 요철을 만들거나(김기린) 유화물감 위에 반복적인 선을 긋고(박서보) 고령토와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떼어내기과메우기를 반복(정상화)하는 등 재료의 물성을 드러낸 점이 다르다. 여기에 반복이란 행위를 통한 수행성도 강조된다. 태동 당시부터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사조로 자리매김했으나 해외 평단과 미술시장에서 각광받기는 40년 만의 일이다. 여기에는 세계 미술계가 설치와 미디어 위주의 경향에서 벗어나 추상회화, 특히 비서구 모더니즘 미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최근 분위기가 작용했다.

해외에서 불어온 단색화 열풍을 타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작품가격도 급등했다.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가 매년 초에 발표하는 <작품 가격> 책자를 보면, 2년 전에 비해 거래량과 가격이 급증했다. 박서보 화백의 경

우 2012년 국내 옥션에서 거래된 작품이 9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6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초기작인 '묘법 No. 211-85'(162×130cm, 1985년작)는 지난해 12월 K옥션에서 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정상화 화백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2012년 3월 K옥션에서 거래된 작품 '무제 97-1-6, 97-7-26'(130×97cm 3개, 1997년작)의 가격은 4000만원이었으나 같은 작품이 지난해 11월 서울옥션 홍콩에서 3억8000만원에 낙찰돼 무려 10배가 뛰었다. 작품 거래량도 2년 사이에 19점에서 48점으로 늘었다. 하종현 화백도 옥션 거래작품이 2점에서 28점으로, 거래가격은 비슷한 크기의 '접합' 시리즈가 1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뛰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옥션의 올해 첫 경매에서도 박서보·정상화·윤형근 등 단색화 17점이 모두 낙찰되는 등 인기가 이어졌다. 이처럼 국내 미술시장이 단색화에 쏠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데 따른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편이다.

한국의 '독립사조'로 인정
베니스비엔날레 기간과
소더비 홍콩의 행사 맞춰
대규모 전시회 열려
국내에서도 재조명 활발 속
단색화로 급격한 쏠림에
가격 거품 우려 목소리도